

담양에 국내 첫 국립정원문화원 개관...K-가든 세계화 박차

전남도 건의 국가사업 반영...7ha 규모 작년 12월 준공
정원문화 연구·산업 진흥 거점 기관...인재양성 등 전개

국내 최초의 정원 전문기관인 국립정원문화원이 18일 담양에 개원하며 전남이 정원문화와 세계화와 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이날 정원문화와 산업 진흥과 정원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국립정원문화원이 담양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정원문화의 세계화와 전문적 연구,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문 기관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당초 정부는 지방시설로 운영할 방침이었으나, 전남도의 지속적인 건의와 중앙정부 설득 끝에 2021년 국가사업으로 반영되면서 국내 최초 정원 전문기관이 문을 열게 됐다.

담양군 금성면 총 7ha 규모로 조성한 국립정원문화원은 지난해 12월 준공했다.

생활정원, 문화정원, K-가든, 소재정원 등 4개의 정원지구에 15개의 주제 정원으로 구성돼 있고 방문자센터, 교육 연구동, 실습 재배 온실 등의 교육시설과 기획전시, 온실 체험 등 다양한 시설과 한옥, 카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기락 산림청 차장, 이기호 국회의원, 정철원 담양군수,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을 비롯한 국내 정원 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의회 일정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 정원문화의 뿌리인 담양에서 국내 첫 국립정원문화원이 문을 열게 된 것을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개원은 전남도가 노력해 얻은 값진 결실로, 앞으로 국립정원문화원과 함께 K-가든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18일 담양 금성면에서 열린 국립정원문화원 개원식에 참석한 정철원 담양군수와 이기락 산림청 차장, 김정은 전남도 환경산림국장 등이 헌관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담양군

국립정원문화원은 수요 맞춤형 정원분야 미래 인재 양성, 대국민 정원문화 서비스 강화, 케이(K)-가든의 글로벌 선도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정원 전문 자격제 도입과 표준화를 통해 인력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확대해 정원문화를 일상 속 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국제 정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 속 K-가든 위상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전남도가 대한민국 정원문화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미 지난해 미국 뉴욕한국문화원에서 담양 소재원을 주제로 ‘에안단’ 정원을 선보였고,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도내 10개소가 선정되며 남도정원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앞으로 국립정원문화원 개원과 함께 국가정원, 담양 죽녹원·구례 지리산정원 등 지방정원, 도내 민간정원과 연계한 전남형 정원관광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7 남도정원비엔날레, 2031 장마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 행사도 열어 정원문화 확산 정책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뷰티기업, 라이브커머스로 전국 소비자 만난다

시, 기획 등 맞춤형 지원...온라인 판로 개척·매출 상승 기대

마스카라·향수 등 광주 뷰티기업 제품이 방송으로 전국 소비자를 만난다. 광주시는 지역 뷰티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과 매출 증대를 위해 다음달 29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광주 뷰티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에는 노이썬, 디자인퍼퓸, 뮤즈542, 미나페이, 뷰티슬림, 알제이벤처스 주식회사, 유한회사 강청, 제이에스바이오키퍼미(주), ㈜노아코스메틱, ㈜라피네제이, ㈜매콤뷰티아카데미, ㈜테뷰, ㈜하경코스메틱, 페이스올릭, 퓨어밸리 총 15개 기업이 참여한다. 방송에서는 파워더형 앰플, 클렌저와 스킨케어 제품, 마스카라, 모델링

팩, 다이어와이(DIY) 향수 등 지역 뷰티기업이 개발한 다양한 제품이 소개된다. 주요 방송 플랫폼은 네이버 쇼퍼라이브, 그립, 쿠팡 등이다. 방송 중에는 무료배송, 구매자 추천 이벤트(커피 쿠폰 제공), 20~50% 할인 등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된다.

광주시는 방송 전 상세 페이지, 섬네일, 소개 영상 등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리뷰 마케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광주시와 광주경제진흥원 생일자리재단이 2024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기획부터 쇼호스트 섭외, 촬영, 송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라이브커



머스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축적해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광주시는 앞서 7~8월 두달간 1차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했으며, 15개 기업의 29개 상품을 소개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앞으로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올리는 것

이다. 이번 조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인사처는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11개 출연기관 경영평가 성적표는

광주연구원·문화재단·기후에너지진흥원 ‘A등급’

광주시 출연기관들의 경영 성적표가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광주시가 공개한 2024년도 실적 기준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 출연기관 11곳 가운데 광주연구원·문화재단·기후에너지진흥원 등 3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곳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여성가족재단·디자인진흥원·글로벌광주방송·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신용보증재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7곳이었다.

최고 등급인 S등급과 하위권인 C등급

은 없었으며,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유일하게 최하위 D등급을 받았다.

기관평가 11곳에 테크노파크와 사회서비스원을 더한 13개 기관장 평가에서는 광주연구원과 사회서비스원 등 2곳이 A등급을 획득했다.

B등급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기후에너지진흥원·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디자인진흥원·문화재단·여성가족재단·인재평생교육진흥원·신용보증재단 등 8곳이었다.

C등급은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글로벌광주방송·테크노파크 등으로, 하위

권에 머물렀다.

기관장 평가에서도 S등급은 없었고 최하위인 D등급을 받은 곳 역시 없었다.

광주시는 그동안 외부 용역에 의존하던 출연기관·기관장 평가를 지난해부터 자체 평가로 전환해 신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기관별 성과급과 기관장 연봉에 반영하고, 부진 기관에는 현장 방문과 기관장 면담을 포함한 심층 진단 및 개선 과제 컨설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자치특위 출범

윤난실 위원장 “주민 주도로 지역문제 해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균형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혁신자치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혁신자치’는 주민과 공동체가 주도해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으로, 국민이 정책 과정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특별위원회에는 윤난실 위원장(사진)을 비롯해 사회혁신·주민자치 분야 전문가 등 지역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사 19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경수 위원장은 인사발에서 “혁신자치특위가 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현장에서 풀어나갈 해법을 찾고, 잃어버린 3년을 신속히 극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며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주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윤난실 위원장은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며 단체장과 의회 중심의 운영으로 주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주민참여제도 개편, 주민 주도의 거버넌스 혁신,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의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신고전화
국번없이 **1332**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 지급

**보험사기,
최대 무기징역!
양형기준 강화**

“보험사기 어차피
다들 하는 거 아니냐?”

가벼운 판단이, 무거운 처벌로 되돌아옵니다.

**의료인·보험업계 종사자의
보험사기 최대 무기징역!**

경찰청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